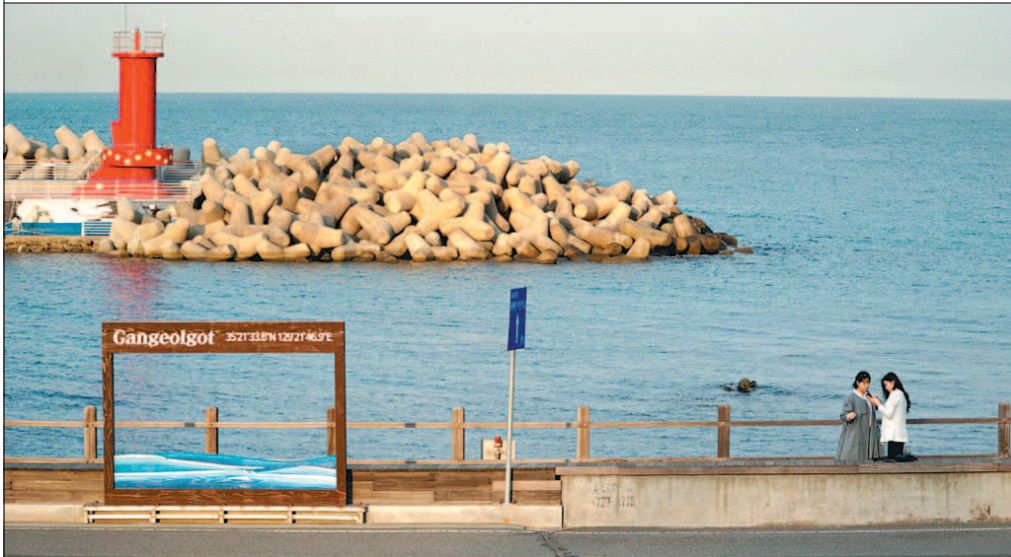




동해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울주 간절곶 공원 해안가 길을 걷고 있는 여행객들(왼쪽)과 선사시대 각석과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 천전리 계곡. 연록빛으로 물이 오른 신록의 싱그러움과 계곡물이 어우러져 마치 무등도원같은 정취를 자아낸다.

태고의 신비와 자연의 비경 품은 ‘울주의 봄’

신록 물든 반구대 암각화의 신비
해돋이 명소 간절곶서 소원 빌고
서생포 왜성 봄꽃 파노라마까지
내달 국내 최대 옹기축제도 열려

“울진이 아닙니다. 울주입니다.” 취재길에 만난 군의 지역관광 담당자는 대뜸 군 이름부터 거듭 확인했다. 2018년 3월 현재 인구 22만여명. 울산광역시 서부에 있는 울주는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 2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큰 곳이다. 하지만 관광 담당자가 노파심에 확인할 정도로 ‘관광 브랜드’로 울주는 이미지가 크게 선명하지 않다. 오히려 군에 속한 연양이나 온양이 불고기나 온천으로 명성이 높지, 아직 울주 자체를 여행 ‘바킷리스트’에 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울주로서 이런 세간의 평가가 억울할 만하다. 서쪽에는 가시산과 신불산 등 산세 수려한 일곱 산이 모인 ‘영남 알프스’가 있고, 동쪽 해안에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간절곶이 있다. 내륙에는 서생포 왜성과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있다. 의욕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문화축제 ‘울산옹기축제’도 있다. 예전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지만, 요즘은 KTX로 서울역에서 2시간10분 대에 울산역에 도착한다. 한 지역에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역사유적과 먹거리 등 여행의 재미도 고루 접할 수 있는걸 생각하면 울주는 확

실히 ‘저평가’된, 그래서 앞으로 더 탐구할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봄날의 황홀한 신록, 반구대 암각화와 간절곶 공원

가시산 사계, 신불산 역새 평원, 파래소 폭포, 작괘천, 대운산 내원암 계곡, 선바위, 반구대, 간절곶 일출. 울주의 매력을 상징하는 ‘울주 8경’이다. 만약 8경을 모두 돌아보기 어렵다면 요즘 같은 봄날에 반구대와 간절곶을 추천한다.

거북이가 엮드린 모양이어서 이름이 붙은 반구대는 국보 285호인 암각화가 있다.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 변 절벽에 너비 10m, 높이 3m 크기로 있는 암각화는 신석기시대부터 만들어진 고래 물개, 거북 등의 바다 동물과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의 육지 동물, 그리고 이것을 수렵하는 사람 모습이 남아 있는 귀한 유적이다.

반구대는 암각화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길이 너무 수려하다. ‘신록(新綠)’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연두빛 수채화 물감으로 곱게 그린 듯한 숲과 산자락이 싱그러웠다. 암각화 앞을 수줍게 흐르는 대곡천 물에 비친 푸른 숲의 반영도 일품. “숲 색깔이 너무 황홀하네”라는 동료 기자의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반구대 암각화를 볼 때는 인근 천전리 각석을 묶어서 같이 돌아보면 좋다. 국보 147호인 천전리 각석에도 선사시대부터 신

라시대에 걸쳐 바위에 새긴 그림과 글을 볼 수 있다. 각석이 있는 천전리 계곡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는데, 물속 잉어때를 보면 서 계곡에서 발자국 화석을 찾아보는 재미가 남다르다.

간절곶은 매년 1월1일이면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유명세가 높은 곳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완만한 구릉을 따라 하얗고 빨간 등대와 조각상, 풍차, 거대한 소망유체통 등이 여유롭게 자리잡고 있다. 공원 앞길은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마음 편히 걸어다니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눈앞에 열리는 자연 파노라마, 서생포 왜성

간절곶 인근의 진하 해수욕장은 완만하게 휘어지는 넓은 백사장과 송림, 그리고 해변 가까이 점점이 흩어진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이다. 1km에 달하는 백사장은 성수가 때 하루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명성도는 작은 길 이 생겨 해변에서 걸어서 찾아갈 수 있다. 진하해수욕장에서는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의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진하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서생포왜성은 앞서 언급했던 곳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하지만, 바다 조망과 산길을 산책하는 매력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으로 침략한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식 축성법으로 지은 산성으로 둘레가 4.2km에 달한다. 지금은 천수각 등 큰 건물은 없고 석축과 성벽 정도만 남아 있다. 왜성이 있는 용곡산

은 209m로 그리 높지 않지만, 둘레길까지 올라가는 데 20여분 정도 비탈을 올라가는 수고는 해야 한다. 하지만 봄꽃이 길 곳곳에 피어있고, 길에 야자매트 등이 잘 깔려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올라가는데 숨이 제법 가쁘기는 하지만, 왜성 앞에 서면 눈앞에 진하 해수욕장과 서생리 마을, 화야강이 어우러진 시원스런 자연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옹기 도박장수 행렬, ‘울산옹기축제’

온양읍에 있는 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 옹기마을이다. 울산옹기박물관과 옹기아카데미관을 비롯해 전통공방과 전통가마 등 옹기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이곳에 있다. 매년 이곳에서는 ‘울산옹기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5월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옹기 도박장수 행렬을 보여주는 ‘외고산 옹기 팔러가세~!!’, 관람객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밟으며 노는 ‘옹기장난혼’, 소원 장작 넣기, 가마 먹거리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볼 놀이터 등이 있다.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직접 보여주는 옹기장인시연관과 옹기문화국제교류전도 열린다. 특히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해 나만의 옹기 만들기 체험, 옹기에 그림 그리기, 옹기 발효음식 담그기, 옹기다레 체험, 옹기물레 체험, 옹기다움심기 등 옹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울주 | 글·사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캐리비안 베이, 21일부터 차례로 개장

경기도 용인 위터파크 캐리비안 베이가 40여일의 보수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21일에는 1만8000㎡ 규모의 실내 물놀이 시설 아쿠아틱 센터와 국내에서 가장 긴 550m의 야외 유수풀을 오픈한다. 이어 28일에는 폭 120m, 길이 104m인 야외 파도풀을 오픈하며, 메가스톱, 타워부메랑고, 아쿠아루프 등의 인기 높은 스틸 어트랙션은 5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드래곤시티 ‘5성’ ‘4성’ 호텔 인증

서울 용산의 호텔플러스 서울드래곤시티에 있는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용산과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서울 용산이 호텔 등급심사에서 각각 5성(★★★★★)과 4성(★★★★)을 받았다. 서울드래곤시티는 5성 및 4성 획득을 기념해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시티 오브 스타(City of Stars)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17년 11월 개장한 서울드래곤시티는 등급 심사를 받은 두 호텔을 포함해 그랜드 메리어트 엠베서더 서울 용산, 노보텔 스위트 엠베서더 서울 용산 등 아코르 계열 호텔 브랜드 4개, 총 객실 1700개를 갖추고 있다.

익스피디아 ‘천원호텔’ 이번엔 해운대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018년 ‘천원호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는 부산 신라스테이 해운대를 시작으로 제주 라마다 플라자 제주 오션 프론트, 서울 L7 강남동 3주 간 3개 호텔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첫 호텔 신라스테이 해운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익스피디아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천원호텔 이벤트는 1인 1회, 1박 1실로 한정하며 중복예약은 불가하다. 이용기간은 이벤트 당일부터 5월31일까지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eco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 냉방·난방 풍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 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